

“경찰 신뢰 하락에 유튜버 사적제재” 지적

광주경찰청 국감

체감안전도 18개 시도 중 16위
‘교제폭력’ 등 미온적 대처 질타
간부 갑질·승진 인사 청탁 비판
박성주 청장 “시스템 인사하겠다”

광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높은 축법 소년 범죄 비율에 비해 낮은 학교전담경찰관 인력, 경찰의 신뢰가 떨어져 유튜버의 사적제재까지 나오는 등 낮은 치안 만족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2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지역은 축법소년 범죄 발생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많이 높는데 반해 학교전담경찰관(SPO) 한명이 11.2개의 학교를 맡는 등 예방치안 부분에서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 설문조사에서도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을 비교했을 때 전남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체감 안전 수준인 82.1까지 올라온데 반해 광주청은 76.4 수준으로 18개 시·도 중 16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지난해 광주시민 10명 중 3명이 스토킹 피해를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음에도 광주경찰은 지난 5월 교제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쌍방 폭행인데 남자친구랑 화해하는게 낫지 않겠냐’고 말한 것은 ‘관계성 범죄’ 혹은 ‘교제 폭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올해 광주에 신고된 교제 폭력이 1834건인데 이 중 44.2%에 달하는 1044건이 현장 종결로 끝났고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제대로 처벌할 시기를 놓치다가 강력사건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다 보니 유튜버의 사적제재<전남일보 9월24일 4면>까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고 법적 진술서도 쓰지 않는 등 경찰 공무원의 기강에 문제가 생겼다”며 “최근 음주운전 현장을 적발한답시고 음주 의심 차량을 추적해서 검거하는 방송 유튜버까지 등장해 의심받는 사람이 도주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고 사망한 사건까지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이 22일 광주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발생했다. 이렇게 사적제재까지 나오게 된 것은 단속주관인 경찰이 음주 단속까지 제대로 하지 않다보니 발생하게 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갑질이 신고돼 조사를 받던 경찰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건도 논란이 됐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 남부경찰의 한 경정이 같은 부서 직원에게 점심 비용을 여러 차례 결제시키고 퇴근길 집에 데려다주게 시켰다고 주장한 사

건이 있었는데, 해당 의혹을 받는 경정이 바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를 경찰청에서 면직 처리를 했다. 관련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지 않아야 사표를 수리할 수 있는데 아직 사건을 조사 중이고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음에도 사표를 수리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만약 직장 내 갑질을 당한 사람이 또 발생하면 ‘그만두면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되며 앞으로 신고 더하겠냐”고 꼬집었다.

광주 남구, 대촌동에 국제 규격 축구장 짓는다

사업비 45억… 3000평 규모

광주 남구는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대촌동 일대에 국제규격 축구장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남구는 내년까지 대촌동 빔고를 농촌테마파크 인근에 9862㎡(2988평) 면적의 국제경기장 기준을 충족하는 축구장과 주차장 및 화장실, 세면장을 포함한 부대 시설 건설을 계획 중이다. 축구장이 들어서는 빔고를 농촌테마파크 일대는 개발제

한구역으로 남구는 축구장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광주시 및 정부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더불어 사업 대상 지역 주변의 토지 매입을 위해 내달 본격적으로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축구장 건립에는 총 45억원 가량이 소요되며, 사업비는 광주시에서 SRF시설 관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급한 교부금과 구비로 충당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전남서 차량 잇따라 보행자 치어 4명 사상

목포, 졸음운전 중 행인 3명 덮쳐 담양, 80대 여성 트럭에 치어 사망

전남지역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22일 목포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2시45분께 목포 죽교동의 한 도로에서 80대 A씨가 몰던 경차가 인도를 걷던 행인 3명을 덮쳤다. 차에 치인 20대 남성 B씨와 40대 여성 등 3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

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6시11분께 담양군 수북면 한 농로에서 자신의 레저용 픽업 트럭을 몰던 60대 운전자 C씨가 앞서 걷고 있던 80대 여성 D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C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성아·윤준명 기자

주차차량 4대 ‘쿵’… 차 버리고 도주한 20대 경찰 추적

20대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 한 야파트 지상주차장에서 20대 중반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충격의 여파로 옆에 주차된 또 다른 승용차와 SUV 등 총 4대의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주차된 차량에는 탑승자가 없어 인명피해

는 없었다. A씨는 사고 직후 피해 차량에 자신의 연락처를 남긴 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도 현장에 그대로 내버려둔 채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연락을 시도 중이나 연락두절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는대로 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성아 기자

말린 생선에 숨겨… 마약 밀반입·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

태국인 총책 A씨 등 27명 구속

태국에서부터 말린 생선에 마약류를 대량으로 감춰 국내로 밀반입한 뒤 유통한 태국인 판매책들이 무더기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대량 유통하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태국인 총책 30대 A씨 등 2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태국에서 마약류를 가방에 넣어 항공편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태국인 20대 여성 B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

속 송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동남아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 합성 마약인 ‘야바’를 말린 생선과 개구리 등 냄새가 심한 식품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해 국내 총책에게 전달했다. 이후 총책, 중간 판매책, 소판매책 등 직책을 나눠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광주 소재 A씨의 거주지에서 야바 1만1207정을 발견했고, 이를 포함해 5억9000만원 상당의 야바 1만1855정과 51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513g을 압수했다. 이렇게 붙잡힌 피의자 27명은 태국인이었고 1명은 한국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국정원·출입국사무소와 공조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인 많은 양의 마약류를 전국 각지에 있는 판매책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국내 총책을 검거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 전국 각지에서 피의자 26명을 순차적으로 체포했다. 전남경찰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태국 공급책을 추적하는 한편 국내에도 마약류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민헌기 기자**

아버지 흥기로 찌른 지적장에 10대, 항소심서 감형

도래 괴롭힘에 용돈 요구 중 범행

도래의 괴롭힘과 협박에 시달려 용돈을 요구하다가 아버지를 흥기로 찌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중증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유진)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장기 2년 6개월,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미성년자 A군(17)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나주시 자택에서 아버지를 흥기로 찌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사결과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A군은 학교 도래인 후배·친구들로부터 협박을 받은 뒤 아버지에게 용돈을 구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나 중상을 가해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점, 중증 지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이고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후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형사처벌을 부과하기보다 적절한 교육, 교화과정을 통해 품행을 교정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민헌기 기자**

광주서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 30대 무면허 운전자 ‘구속 송치’

택시 들이받고 4km 달아나

만취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무면허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30대 초반 A씨를 구속 송치했

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2시30분께 광주 북구 하남대로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A씨는 약 4km 떨어진 북구 운암동의 자

택 인근까지 달아났으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도주 경로를 따라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윤준명 기자**